

두달만에 또...대인시장 상가 화재 참변

3층서 불...60대 부부 숨져
1층 위주 경보기·소화기 설치
2·3층은 화재 사각지대
전기시설 노후 위험 상존
광주시 예방 대책 허투허
경찰, 방화 가능성 등 조사



22일 오전 6시55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한 상가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을 수습한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대표 전통시장인 대인시장 한복판의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가 숨졌다. 지난 3월에도 대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광주시와 소방본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유령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5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내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인근에 있던 상인이 '불이야'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듣고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신고했다.

불은 3층 내부(33㎡)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이날 오전 7시4분에 진화됐다. 화재실에서는 집주인 김모(63)씨와 부인 홍모(6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과 소방은 불이 유일한 출입문이 있는 방에서 시작돼 김씨 부부가 바깥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반대편 화장실로 피신하다 화를 면치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실에는 가로 70cm, 세로 40cm 크기의 창문이 있었지만 사람이 통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건물 2층에는 김씨 아들(34)이 잠을 자고 있었으며, 아들은 출동한 소방관이 깨운 뒤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다행히 인근 상점과 건물로 번지지 않는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인시장내 상가는 410곳에 이른다.

경찰은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현장

감식 등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대인시장에서는 지난 3월 5일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동부소방은 스티커형 스마트 자동소화기를 무료 배포하는 등 광주시와 소방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까지 했다.

하지만 78일 만에 또 불이 나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시장 상인들 사이에 대인시장과 소방당국의 탁상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 상인들은 광주시와 소방당국의 화재대책이 1층 점포로 한정돼 2·3층은 화재방지의 '사각지대'라고 입을 모았다.

상인들은 또 동구청에서 2016년 설치한

천장 아케이드 때문에 2·3층에 불이 날 경우 초기 발견이 어렵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할 동구청은 대인시장 내 2층 이상 건물이 몇곳인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상인은 "시장 내 건물은 대부분 1970년대 지어져 전기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화재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어 불안하다"며 "이번 화재는 천장 아케이드로 인해 발견이 늦어지면서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상인은 "1층에만 소방장비 등이 배치되고, 상인 등이 거주하는 2·3층 주택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불은 1, 2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시장 내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반적인

화재예방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병남 대인시장 상인회장은 "오래된 전통시장은 불이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케이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주는 등 광주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택 광주동부소방 서장은 "최근 100도 이상 온도를 감지하면 소화약제를 자동 방출하는 스마트 자동소화기를 1층 상점 중심으로 100여개 점포에 설치했지만, 주민이 살고 있는 2·3층 주택은 지원대상에 제외됐다"면서 "앞으로 시장 내 취약지역에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등을 추가로 비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판사가 고령 방청객에 "주제넘은 짓" 발언 인권위 주의 조치 권고에 법원 수용 안해

국기인권위원회가 고령 방청객에게 "주제넘은 짓"이라고 발언한 판사의 재판에 대해 인권 침해라며 재발 방지와 주의 조치를 권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6월 60대 초반 대학교수 A씨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40대인 판사로 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판사는 A씨가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재판에서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주제넘은 짓(행동)을 했다" 또는 "주제넘은 것이다"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고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권 발언을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A씨에게 한 것은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방법원장과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

법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말로, 소송지휘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 언행이나 재판 진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법원의 법정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해당 법관의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소속 법관의 법적 언행이 적절하게 구형되도록 노력했고 앞으로도 모니터링 및 재판 진행 컨설팅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인권위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 1호에는 인권위 조사대상에 대해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광주 경찰간부 긴급체포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대기 발령돼 조사를 받던 광주지방경찰청 팀장급 경찰 간부가 긴급체포됐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피의자에게 수사정보 등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청 팀장급 경찰 간부 김모(45)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김팀장이 비위에 연루됐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를 위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팀장은 다른 팀에서 조사중이던 부동산 관련 수사 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김팀장

외에도 또 다른 간부급 경찰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청은 수사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로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팀장 등이 수사내용을 피의자에게 알려줬는지와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추가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인 혐의 등을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석희 배임 무혐의...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 송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은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장기정 자유연년연합 대표는 손 대

표가 김씨에게 월수입 1000만원을 보장하는 2년짜리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배임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협박 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폭행·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연합뉴스

목포서 친형 명의 차량 빌려 광주서 차량털이

고교생 2명 검거

렌터카를 빌려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와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된 차량을 던 고등학교생 2명이 붙잡혔다.

광주광안경찰은 22일 타인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17)군과 B(17)군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포에 거주하는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새벽 2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김모(여·55)씨의 쏘나타 차량에서 현

금과 향수 등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목포에서 A군의 친형 명의로 카쉐어링 차량을 빌린 뒤 광주로 이동했고, 범행 후 목포로 돌아가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군은 "운전만 했고, 절도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목포와 광주를 자주 오고간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반려견으로 10대 여성 유인...상습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반려견에 관심을 보이는 10대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들이 철창행.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와 정모(23)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것. /연합뉴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건국대 인근에서 반려견에 관심을 보이는 A(18)씨 등 10대 여성 4명을 4차례에 걸쳐 집으로 유인한 뒤 수면제를 섞은 주스를 마시게 하거나 술을 먹이는 수법을 동원해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성폭행 장면 촬영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횡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연합뉴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질량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